민주-참여당 "기생정당" Vs "지역당" 날선 공방

지방선거 초반 기선잡기 신경전

민주 "참여당은 3류… 분열만 가속"

유시민 "호남 기득권 인정 못한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18일 '민주 진영 적통'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같은 공방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등을 둘러싼 일종의 기선잡기 성격이 강하다는 평이지만 경우에 따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참여당이 지난 17일 창당대회에서 전국정당화를 정강으로 내걸고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서자 '선거용 정당', '기생정당'이라며 맹폭에 나섰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여당은 정신 못 차린 정치꾼들의 3류 지분정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에 기생하고 특정인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만들어진 선거용 가설정당"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분열에 대해 반성해야 할 세력이 분열을 재촉해서야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당내 친노 핵심인 안희정 최고위원이 국민참여당 창당을 '재통합을 위한 분립'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몰아부치면서 "특정세력이 '노무현 정신'을 독점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게 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재의 지역 독점 정치구조로는 정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의 약점을 지적하며 창당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천호선 국민참여당 최고위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기존 정당에서 새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신당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연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날 공방전은 초반 기선잡기를 위한 신경전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하듯,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통합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연대보다는 통합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장관도 이날 '희망과 대안'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연대의 원칙으로 ▲정책연대 ▲정당한 기득권 인정 ▲소수파 배려 ▲지방정부 공동운영 등을 꼽았고, 연대 대상으론 민주당 등 야5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5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은 호남에서의 민주당과의 연대와 관련 "호남에서 민주당과 연대하면 일당 독재가 된다"며 "호남에선 제 정당과 연합,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 상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민참여당 지도부는 이날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또 오는 30일 5·18 묘역을 참배하고 전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法 갈등은 사법 운용 '헤게모니' 다툼

용산사건·강기갑 판결·형사사법제도 놓고 잇단 샅바싸움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촉발된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물론 이번 충돌은 법원의 용산참사 항소심 진행 과정과 강 의원의 1심 선고 결과라는 두가지의 개별 사안에 대한 검찰측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검찰이 용산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즉시항고를, 강 의원 1심 결과에 불복한 것이 1차적인 계기였던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번 갈등의 내면에는 사법체계의 운용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주도권 다툼이 자리잡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이견과 검찰이 추진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둘러싼 샅바싸움의 연장선에서 이번 사태를 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도 형소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이 임의로 변호인측에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판을 진행 중이고 해당 재판부의 결정 사항"인 점을 들어 공식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고법 안팎에선 법 해석상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개정법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며, 법정에서 제기되는 증거와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각종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구속제도 개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견제장치로 도입된 재정신청의 확대, 수사절차의 적법성 강조 조항 등을 중심으로 입법과정에서는 물론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견해 차이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추진중인데 그 와중에 이번 사태가 터졌다. /연합뉴스

"광주 창조도시로 만들겠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 광주시장 출마 선언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8일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 살맛나는 사회, 행복한 시민을 만들겠다"며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는 우수한 두뇌와 예술적 영감 등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조적 역량이 풍부하며, 문명사적 흐름과 지정학적 위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화와 쇄신, 창조와 도약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와 갈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광주를 창조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4년까지 경제규모를 16개 광역단체 중 4위로, 1인당 GRDP(국내총생산) 3천만 원을 달성하고, 아시아문화전당 광장 바닥에 시민의 이름을 새겨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광주시 산하에 ▲인권복지위원회 신설 ▲세계평화도시협의체 구성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체 구성 ▲각계각층 대표자가 참여하는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개최 ▲170개국 750만 명 해외 한상(韓商)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에서 해야 할 역할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광주시장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독주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궈놓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국가균형발전을 지키는 중대한 선거"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박준영 "무안공항 면세점 전남 브랜드 입점해야"

○…박준영 지사는 18일 무안공항 면세점에 복분자 등 전남도내 생산품을 입점시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19개 사업소 출연기관 간담회에서 "외국 유명 명품 브랜드 뿐만 아니라 전남도 내 경쟁력있는 브랜드가 입점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는 또 "도내 생물산업 관련 연구개발센터의 궁극적 목적을 기업 유치에 둬야 젊은층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원 기초단체장 출마 선언 잇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의원들의 기초단체장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양승일(무안) 의원은 18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무안군수 출마를 공식화 했다.

송범근(담양) 의원도 19일 담양군수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지난 12일에는 이탁우(보성) 의원이 보성군수 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밖에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이 구례군수에, 황병순 의원이 보성군수에, 김석원 의원이 해남군수에 각각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우석 의원은 영암군수에, 김성호·나병기 의원은 함평군수에, 강성종 의원은 신안군수, 이일형 의원은 고흥군수 선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섭 의원 21일 출판기념회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국회의원(광산을)이 21일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이란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현장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이 의원 홈페이지(www.yongsupl.net)와 문화네트워크인 라디오21.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강운태 "5·18때 공무원으로 광주 방문"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8일 광주시장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 도중 80년 5·18 당시 공무 수행차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한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당시 내무부 차관 지시로 내무부 공무원 신분으로 광주에 내려오긴 했지만, 광주에서는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 행동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는 5·18 당시 상부지시에 의해 광주를 방문했다고 했으나, 자서전에서는 호남 향우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 광주를 방문했던 것으로 표현한 바 있다.

안병호 전 함평축협장 출판기념회

○…함평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민주당 안병호 전 함평축협장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사실상 군수 선거 경선에 나설 예정이다.

안병호 전 함평축협장은 23일 오후2시 함평문화체육센터 에서 자신이 걸어온 삶을 주제로한"함평토박이 안병호의 희망이야기"란 주제로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최권일·김지을 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황운학 기자hwang@